

Art



아트인컬처
February 2014

Re-mapping Asia/
지금, 아시아미술은?
글로벌 아티스트 40인을 만나다

Artist/
피에르 위그+필립 파레노

Theme Special/
애니미즘의 귀환

자연과 문명의 순환

차기울展 2013. 11. 20~1. 15 OCI미술관

안젤름 라일리展 2013. 11. 28~1. 12 국제갤러리

차기울의 작품 전반에 흐르는 정조(情調)는 묵시적 분위기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밝은 조명보다 어두운 조명이 그의 작품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OCI미술관에서 열린 그의 개인전 역시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이 짙게 깔린 가운데 전개되었다. 약간 암울해 보이기까지 한, 다소 묵시적인 분위기는 <순환의 여행 / 방주(方舟)와 강목(綱目) 사이>라는 일관된 그의 전시 제목을 받쳐 주는 작용을 하지 않나 싶다. 작품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종의 참조적 기능을 하는 이 제목은 그가 사용하는 만큼 연조가 깊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되게 이 제목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개성의 발현체인 작업을 확장해 왔다. 또한 드로잉, 입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구사하는 가운데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는 세계의 종말과 관련시켜 볼 때 일종의 구원론에 대한 상징이다. 따라서 차기울이 작품 제목에 방주를 포함시킨 것은 명나라 때의 본초학자인 이시진의 저서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유래한 '강목'과 함께 일종의 '치유'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순환의 여행'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차기울이 즐겨 다루는 재료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잘 설명해 준다. 그는 오래전부터 포도나무 줄기, 돌, 흙, 물 등 자연물을 사용해 작업을 해 왔다. 그는 문명의 대척점에 자연을 설정해 묵시적이며 종말론적인 관점을 드러내 왔다. 전시 제목과 동명의 드로잉 작품에 등장하는 거꾸로 매달린 새의 이미지는 곧 자연의 죽음에 관한 상징에 다름 아니다. 작품 속에서 식물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선들은 거꾸로 매달려 죽어 가는 새의 몸을 뚫고 나가 종래는 인간의 몸에 이른다.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다룬 이 드로잉 연작은 '순환의 여행'이 의도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연결돼 있다는, <주역>에 기초한 동양적 순환론인 것이며, 문명의 폐해에 대한 치유로서 자연적 영성(靈性)의 회복(강목)을 은연중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발굴된 세상의 오브제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자연석을 소재로 한 오브제 설치작업과 드로잉 연작에서 차기울은 물활론(animism)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에 영혼과 생명이 깃들여 있다는 물활론적 관점은 사람 혹은 동물의 형상을 한 돌을 채취하는 탐석(探石) 행위를 통해 드러나며, 그것은 설치작업과 짙은 톤의 검정색 드로잉 연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가 오랜 세월동안 나무나 돌, 흙 등 자연 재료를 다루면서 쌓은 경험은 장대한 시각적 성과로 이어졌지만, 작품의 내용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상황의 설정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식상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 서울, 인천 등에서 실시한 '발굴 프로젝트'는 1970년대 개념미술 이후 국내 외의 유사한 선례가 없지 않아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차기울의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몇몇 대작이 주는 강한 시각적 흡인력에 있다. 그 중에서도 갯벌의 흙을 떠서 거대한 규모의 판상에 집적한 작품 <고고학적 풍경 / 불의 만다라>는 스펙터클한 시각적 효과를 자아냈다. 갯벌에 서식하는 계의 구멍(집)을 일정한 직육면체 크기로 떠내서 불에 구워 낸 테라코타 작업으로 얼핏 자연 파괴처럼 보인다. 하지만, 생태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바닷물의 순환에 의해 계 집은 하루 만에 다시 생성되지만,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갯벌의 황폐화는 바다 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차기울의 작업은 환경고발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며 이는 다시 생태 복원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의 <순환의

안젤름 라일리 개인전 <What About Love> 전경_독일 작가 안젤름 라일리의 국내 첫 개인전의 전시명은 록밴드 '하트'의 동명 히트곡에서 영감을 받았다. 작가는 서울 인근에서 찾아 낸 오래된 공업용 부품과 건축자재들, 베를린에서 가져온 부서진 액자와 네온 작업으로 전시를 꾸렸다.





위 · 차기울 <순환의 여행 / 방주와 강목 사이> 포도나무, 자연석,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크기 2011

아래 · 차기울 <고고학적 풍경 / 불의 만다라> 소성된 깃털 1,000×300×300cm 2013 작가는 이번 초대 개인전에서 평면, 입체설치, 미디어영상이 포함된 총 36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 제목은 동서양의 만남을 상징한다. 방주는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의 방주'로서 서양문명을, 강목은 한방에서 쓰이는 약초나 약재의 기록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따온 것으로 동양사상을 의미한다.

여행 / 방주와 강목 사이>는 특히 이 자연 생명의 존중과 생태의 복원 차원에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국제갤러리 K3전시장에서 열린 안젤름 라일리(Anselm Reyle)의 개인전 <What About Love>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순수한 시각적 측면에서 접근한 사례로 흥미를 끌었다. 1970년 독일의 튀빙겐에서 태어나, 현재 40대 중반인 그는 모더니즘 미술의 정전이랄 수 있는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앳상블라주, 모노크롬 회화, 발견된 오브제, 라이트아트 등을 중흥으로 작품에 끌어들인다. 그런 가운데 특유의 회화와 설치미술의 형식으로 풀어 낸다. 이번 전시를 위해 그는 작품의 주재료가 되는 발견된 오브제들 상당 부분을 서울에서 조달했다. 다양한 산업 폐기물을 서울 시내의 모처에서 대량으로 가져다 사용하고 전시가 끝난 뒤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안젤름 라일리의 주된 아이디어는 이른바 일상과 예술의 혼용이라는, 이제는 현대미술의 다소 고전적인 수법이 된 방법론에 기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작업을 이끌어가는 감각만큼은 매우 뛰어나다. 그는 특히 재료와 색채를 다루는 데 있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데, 대작에서 오는 스펙터클한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프랑스 마가장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전시 <Ultracore>에서는 빨강색 형광 물감이 가득 든 소화기를 손에 들고 넓은 벽의 전면에 마구 뿌려대거나, 숫제 커다란 물감 통을 들이붓는 동작도 서슴지 않아 보는 사람에게 시원한 시각적 카타르시스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비록 대작은 아니지만, 안젤름 라일리 작품의 진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했다. 그의 작업은 회화와 조각, 라이트아트, 설치작업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작업을 중심으로 소화기에 물감을 넣고 제작한 퍼포먼스 기반의 회화, 색과 빛의 관계를 탐구한 라이트아트를 선보였다. 비록 설치작업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작품은 형형색색의 네온 튜브들이 이루어 내는 기하학적 형태가 중심이 되고, 그 주변에 다양한 산업 폐기물의 집적이 어우러져 특유의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개인전에서는 독일의 작업실에서 가져온 상당량의 채색된 캔버스 프레임을 겹쳐 쌓아올린 가운데 현장에서 구한 판재, 직선과 곡선의 선재, 철망, TV모니터, 자동차, 냉장고 등 낡은 산업폐기물이 뒤엉켜 마치 프랭크 스텔라의 부조회화 혹은 바로크적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연출하였다.

모더니즘 미술의 창고

안젤름 라일리는 동년배의 작가들과는 달리 과거 모더니즘의 창고에서 공공연하게 다양한 조형적 선례들을 끄집어 내는 데 익숙하다. 헨리 무어의 조각을 연상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장 뒤뷔페적인 요소도 있고, 잭슨 폴록 스타일의 드리핑 회화가 현란한 형광색 물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젤름 라일리의 작업은 가히 '모더니즘 미술의 창고'라 불릴 만하다. 그는 선배의 작업을 믹싱해 자기화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처럼 보인다. 여러 명의 조수와 함께 작업을 하는 그의 작업실은 미술의 실험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조형적 실험이 벌어진다. 실리콘과 합판 등 다양한 건축자재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형형색색의 알루미늄 호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그의 회화는 전시장의 조명과 어울려 환상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데, 이처럼 빛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과거 모더니즘 작가들의 작업 유형과 다른 점이다.

안젤름 라일리의 작업은 현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그가 문명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현대문명에 대해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이를 미적으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낙관적이다. 그는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을 자신의 작업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돋보인다. 또한 알루미늄 호일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재를 사용하여 탈(脫) 평면을 시도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점이다. 아무튼 안젤름 라일리의 이번 전시는 그의 조형적 실험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지만, 장소 관계상 더욱 스펙터클한 대작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윤진섭